

照明
實錄

太宗과世子廢立

(제 5 회)

〈實錄研究家, 人間文化財〉

李 在 範

11. 태종(太宗)의 진심(眞心)

그해 6월 16일에 세자 제(禔)의장인(丈人)인 김한로(金漢老)를 병조판서로 임명했다. 병조판서는 한 나라의 병권(兵權)을 장악하는 직책이므로 아무나 함부로 임명하는 직책이 아니었다. 이와같은 막중한 직위를 세자의 장인인 김한로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분명히 세자의 지위를 튼튼히 굳혀주는 처사로 보는 것이 옳다. 이때 만약 태종이 세자를 폐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면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후 세자에 관하여 학문을 게을리 한다는 잔잔한 물의는 있었으나, 다음해인 18년 5월에 어리사건이 재발되어 그해 6월에 폐세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무사히 지냈다. 여기에서 세자폐립에 관련하여 태종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태종은 즉위 6년 8월에 세자에게 선위(禪位)의 뜻을 나타내기 까지는 세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조금도 다른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후, 80년 11월에 있었던 문소전(文昭殿) 세자 불참사건을 비롯하여, 9년 정월에 일어난 이매(梅)의 탄궁(彈弓)사건, 13년 3월에 일어난 일너 소맹(小鵬)사건, 그해 8월에 일어난 매(鷹)사건에 이르러서는 태종의 분노가 세자의 지위에 관한 거론까지 하게 되었다. 그후 14년 정월의 초궁장(楚宮粧)사건은 태종을 크게 노하게 하였으며, 16년 9월에 일어난 어리(於里)사건에 서는 또다시 “予子非一”의 어의가 나타났으며, 세자는 김한로의 사저에 내친바 되어, 곧, 동궁(東宮)의 폐위가 예상 되기도 하였다. 이것을 표면으로만 볼 때에는 태종이 세자를 갈아치우고져 그렇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자를 봉한지 13년이나 되는 17년에 일어난 어리사건에 서도, 일응 세자를 사가에 내치면서도, 한편 변계량(卞季良)을 은밀히 보내어 세자로 하여금 종묘(宗廟)에 나아가 스스로 회개하게 한 다음에 크게 기뻐하였다는 점과, 그 행위는 밍기는하나 왕실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를 창설하는 그즈음에, 어떻게 하여서든지 장

자 장손(長子長孫)으로 하여금 왕통(王統)을 잇게 한다는 방침아래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제 스스로 자신(自新)하기를 고대하였다는것은 명백하고 역력하다. 특히 세자를 폐하기 위한 어전회의에서 태종이 표명한 다음의 태도를 볼때 더욱 그러하다 할것이다.

『나라에 적장(嫡長)을 세워 대를 잇게 하는것은 고금의 항규(恒規)이다. 과인은 제를 폐하고 제의 아들로 하여금 그 뒤를 삼고져 하니 그를 왕세손(王世孫)이라 할것인가, 왕태손(王太孫)이라 할것인가. 옛일을 상고해 보라.』 뿐만 아니었다. 그해 5월 30일에 세자가 부왕에게 항의서한(抗議書翰) 이서한이 세자폐위의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올리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종은 어리가 또다시 세자궁에 들어왔음을 알고 분격찬 나머지, 개경(開京, 그때 태종은 내쫓겨 왕자인 성녕대군이 죽어 상심한 나머지 서울을 떠나 개경에 머무르고 있었다.)에서 그를 피시키고 있던 세자제를 한양으로 쫓아 보내면서 글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도록 엄한 영을 내린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세자의 학문을 염려한 나머지 빈객(趙庸) 빈객과 탁신(卓愼)에게 일러 세자의 서연(書筵)을 다시 열도록 조치하였다.

『기왕의 잘못을 나무라서 무엇하나. 세자로 하여금 속히 전일의 잘못을 거울삼아 스스로 자신의 기쁨이 되게하라. 그러한 소식이 과인에게 들리게 하라. (俾往不咎 俾世子 速改前日之愆 以自新之端 速聞於予)』

이러한 엄연한 사실들을 볼때, 태종이 세자제를 갈아치우기 위하여 일부로 제를 미워 하였다 고하는 오늘의 속설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세자가 뉘우치는 뜻으로 스스로 종묘에 고하고 또한 부왕에게 상서를 올려 용서를 빈 이후

부터 다음해인 18년 5월의 운명의 어리(於里) 사건이 재연되기 까지 이는 비록 잔잔한 몇가지 물의는 있었으나, 세자로서 부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지위를 더욱 굳혀 주기 위하여 그의 장인 김한로를 병서판서로 임명하였으며, 그를 조의(朝議)에 참여케하여 조정공론을 배우게 하고, 또한 태종이 거동할 때에는 함께 세자를 배행케 하였으며, 매일같이 부왕과 함께 활쏘기를 익히기도 했다. (上命世子 或參朝啓 或隨駕郊外 又每日侍射)

12. 폐세자(廢世子)

태종 18년 5월 10일. 태종께서는 크게 노하였다. 지난해에 내친바 있는 어리(於里)가 또다시 세자궁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때는 벌써 어리에게는 어린 아이까지 달려 있었다.

불 같이 노한 태종은 그때 개경에 와있던 세자를 한양으로 쫓아 보내는 한편, 세자궁 내지인 이전기(李全奇)를 의금부(義禁府)에 잡아들여 국문을 하였다. 이에 관련된 세자의 장인 김한로는 죽산(竹山)으로 귀양을 보냈다가 다시 나주(羅州)로 옮겼다. 세자를 감싸고 두둔하였던 황희(黃喜)는 교하(交河)로 내쳤다가, 다시 남원(南原)으로 귀양갔다. 지난해에 이오방(李五方)의 무리로 남아 있던 권보(權堡)도 참형을 당하였다. 어리는 즉시 그의 친가로 쫓겨났고, 세자궁의 숙위사(宿衛司)·장무(掌務) 등은 의금부에 하옥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화작업을 마친다음에 태종은 영을 내려 다시 서연(書筵)을 열어 세자로 하여금 학문을 계속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깊은 상심에 싸여 있어 서연에 나아 가지들 아

니했다.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사람 모양 며칠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빈객 조용은 간곡히 청했다.

『저하, 심기를 가다듬어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학업을 닦아야 하오이다.』

그러나 세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

『내 어제부터 발(足)에 종양이 생겨 서연에 나갈수 없소.』

『발에 종양이 있으시더라도 전하의 뜻을 받들어 강(講)을 들으시오소서.』

『발이 아파서 못나간다는데도 그러는구나.』

『서연에 나가 학문을 익히시람시는 전하의 어명이오니 비록 약간 불편 하시더라도 잠시만 서연에 나가셨다 돌아오시오면 전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되오이다.』

그러나 세자 제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

다음날 조용은 또다시 세자에게 청했다.

『저하, 오늘은 기어히 서연에 드시옵소서.』

『오늘은 배가 아파서 못나가겠소.』

빈객 조용은 또다시 간곡히 청했다.

그러나 제는 응하지 아니했다.

조용은 세자궁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저하, 저하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깊이 헤아리소서. 신이 저하의 빈객으로 저하를 피신지 이미 몇해가 되었으나 아무런 보도의 효과가 없아오니 실로 통분하옵고 원통하오이다…….』

옆에 있던 서연관 김여지(金汝知)와 탁신(卓眞)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저하, 이는 전하의 어명이옵니다.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서연에 나가셔야 하오이다. 살피소서.』

그러나 제는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

5월 30일, 제는 급기야 내관 박지생(朴枝生)을 개경으로 보내어 부왕인 태종에게 스스로 지은 서한(書翰)을 보냈다.

『전하께서는 일찌기 그 많은 궁녀(宮女)들을 궁중에 들일 적에 어찌 하나 하나를 가려서 들었나이까. (侍女 盡入宮中 盡重念納之) 이제 신의 첩(妾)으로 있다가 내어 쫓긴자 벌써 몇 사람에게 이르름에, 그들의 곡성(哭聲)이 사린에 미치고, 그들의 원망이 나라안에 가득 차니 이제 신은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나이다.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 :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세운 劉邦)는 산동에 거할 때에 탐재(貪財)하고 호색(好色)을 하였어도 그는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여 훌륭한 제왕(帝王)이 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진(晉)나라 왕인 광(廣)은 비록 어진자라는 칭찬이 자자 하였어도 제왕이 된지 오래 가지 아니하여 끝내 나라를 망치지 아니하였습니까. (漢高祖 居山東時 貪財好色 乃終天下 晉王廣 雖稱其賢 及其即位 身危國亡)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신의 뜻을 헤아리시지 못하시며, 신의 큰 효도를 알지 못하시옵나이까. (安知 臣之終有大孝也) 이제 신의 첩 하나를 쫓아 내어 그 무엇을 얻으려 하시오며 설사 그를 쫓아내지 아니한들 또한 잃을바 그 무엇이옵나이까. 신의 장인 김한로는 다만 잠시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었을뿐 다른 뜻이 없었는데도 그가 무슨 큰 죄가 있다하여 전하가 옛날 포의(布衣)적 부터 사귀신 공신(功臣)을 저렇듯 난폭하게 쫓아 버리시나이까. (忘布衣之交 棄之暴也) 신은 이제부터 스스로 자신(自新)을 하겠아오니 전하께서는 터럭 만치도 동렴(動念)을 하지 마옵소서.』

이 서한은 세자 폐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

었다. 그러나 이 서한은 또한 제(提)이 진심을 엿볼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자세히 분석하려 하거니와, 그는 스스로를 한나라 고조인 유방(劉邦)과도 같은 영웅호걸(英雄豪傑)로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태종은 그러한 서한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분노의 영역을 넘어서 심히 비통해하였다.

『이는 모두 과인을 욕함이로다. 과인은 심히 부끄러워 경들을 볼 수가 없구나…….』

조정은 물끓듯 했다. 삼공 육경과 대소 조신들은 서로 모여서 무엇인가 심각한 의논들을 나누었다. 무거운 침묵속에 이틀이 지났다. 6월 2일, 마침내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上訴)가 올라왔다. 유정현(柳廷顯), 박언(朴崙), 한상경(韓尙敬), 유창(劉敞), 정탁(鄭擢)을 비롯하여 육조, 삼군, 대간 등의 연명 상소였다.

『신자의 직은 그 충효에 있사오며 충효가 없을진데 가히 사람이라 할 수 없사온바, 하물며 한 나라의 세자와 같은 막중한 직책에 이르러서 무엇을 더 말하리오…세자께서는 이미 종묘(宗廟)에 스스로 허물을 고치겠다는 맹서를 하였으며, 또한 전하에게 회개의 상서를 올린바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과 종묘와 군부(君父)를 속이는 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는 그 사안이 막중한 것인지를 신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아오나 이제 세자께서 도로혀 원노를 품으시고 오연히 수서(手書)를 올렸으며, 그 내용이 패만(悖慢)하고 또한 신자의 태도가 전혀 없사움에 이르러서는 신 등은 오직 경황(驚惶)하고 전률(戰慄)함을 이기지 못하와 이에 죽음을 각오하고 상

소를 하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데 전하께오서는 창업(創業)의 어려움과 종사(宗社)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오시고 신들의 소망을 가납하시와 세자를 폐출(廢出)하오소서.』

태종은 백관들의 상소문을 보고 드디어 폐세자를 결심했다. 태종은 백관에게 일렀다.

『적장(嫡長)으로 세자를 삼는 것은 고금의 항규(恒規)이다. 그러므로 과인은 제(祫)를 폐하고 제의 아들로써 그 뒤를 삼고져 하는 바, 그렇게 할 때 그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 왕세손(王世孫)이라 할 것인가, 혹은 왕태손(王太孫)이라 할 것인가, 경들은 옛일을 상고해 보라(立嫡以長 古之恒規 我欲以褻子代之 稱爲王世孫乎 王太孫乎 稽古議問)』

일부 신하들이 태종의 제의에 동조하여 제의 아들로 뒤를 세우라 했다. 그러나 유정현은 의견을 달리했다.

『신은 학문을 깊이 배우지 아니하여 고사는 잘 알수 없아오나, 세자폐립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일시 권경(權經)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온즉, 오늘날의 조정사정을 살펴볼때 옛 법도에 따르기보다 마땅히 어진 왕자를 가려서 세자로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뢰옵니다. (事有權經 當擇賢)』

박언도 유정현의 제의에 동조했다.

『그 아버이를 폐하고 그 아들을 세우는 것이 옛 법도에 있으면 또한 모르거니와, 그러한 예가 없으면 마땅히 어진이를 가려서 세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조연(趙涓, 김구덕(金九德)), 심온(沈溫 : 세종대왕의 장인), 김점(金漸) 유은지(柳殷之)이적(李迹) 등이 택현(擇賢 : 어진 왕자를 세우는 일)에 찬동하고 나섰다.

잠자코 있던 이원(李原)이 색다른 제의를 했

다.

『선택을 하늘에 맡겨서 거북점(龜筮)으로 결정함이 어떠하오이까?』

그의 의견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왕후 민씨(閔氏)는 태현에 크게 반대했다.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난(亂)의 근본을 만드는 것이니 아니되오.』

잡는 울박이 있는 끝에 태종은 결정을 내렸다.

『경들의 중의가 그러하니 태현을 하리라. 태현을 할진대 과연 어느 왕자를 세우는 것이 좋겠오?』

중대한 문제이다. 모두들 몸을 사렸다.

『그 아들을 알고, 그 신하를 아는것은 오직 군부(君父)만 같지 못하오니 전하께서 결정 하오소서.』

태종은 왕자들의 인품과 능력에 대한 평을 했다.

『효녕대군(孝寧大君)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한 그 성품이 심히 곧을 뿐, 넓이가 없도다. 과인이 무엇을 물을진대, 다만 미소를 머금을뿐 별로 대답이 없었도다. (孝寧 資質微弱 又性甚直 無開坐 聞予言 但微笑而已) 이에 반하여 충녕대군(忠寧大君 : 世宗大王)은 천성이 총명하고 크게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라 할 지라도 밤이 새도록 독서를 하니 가히 대임(大任)을 맡길직 하도다. 그러므로 태현을 할진대 충녕으로 세자를 삼고져 하노라. (忠寧 天性聰明 頗好學 雖當盛寒極熱 終夜讀書 可任大位 忠寧定爲世子)』

『신등이 태현하오시라는 뜻도 곧 충녕대군을 두고 하는 말씀이오이다.』

이렇게 되어 세자폐립에 대한 어전회의의 결론이 났다. 중대한 세자폐립이 결정되자 태종

은 스스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굶기야 대성 통곡을 했다. 실록에서는 그때 태종이 실성(失聲)토록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있다. (上哭泣失聲已而) 왕조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장자인 제(양녕)로 하여금 왕통을 계승시키려고 무한히 애쓴 보람이 끝내 이루어질지 못한데 대한 슬픔이 아니었는가.

다음날인 6월 3일, 세자폐립에 대한 교서(敎書)가 반포 되었다.

『과인은 일찌기 적장(嫡長)인 제(禛)를 세자로 삼았으되,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聲色)에 탐닉하였으나, 아직 그 나이가 어린지라 차차 성장을 하면 스스로 자신(自新)하겠거니 기대하였도다. 그러나 이미 그 나이가 이십이 지났음에도 그 비위를 고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복주(伏誅)된자 이미 몇사람에 이르렀도다.

제는 스스로 그 허물을 알고 종묘와 과인에 게 자신의 뜻을 밝힌바 있었으나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간신(奸臣) 김한로의 꾀임에 빠져 그릇된 전철을 또 다시 밟았도다. 그러나 과인은 부자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여 다만 한로를 내어 쫓는데 그쳤거늘, 이에 대하여 저는 도로혀 원노(怨怒)를 품고 분연히 상서를 하였음에 그 내용이 매우 패만하여 신자의 의리가 조금도 없었도다.

이에 합사서장(合辭署狀)하는 백관들의 공의(公議)에 따라 제를 세자의 위에서 폐하고, 새로이 충녕대군(忠寧大君) 도(禔)를 왕세자로 책봉하노라. 슬프다. 고인이 이르되 화(禍)와 복(福)은 스스로 구한다 하였더니 과인이 어찌 터럭만치라도 애증(愛憎)의 사사로운 마음이 있었겠느냐. (予豈有一毫愛憎之私心哉)』

태종은 문귀(文貴)와 최한(崔閑)을 한양에 보

내 전 세자인 제에게 양녕대군(讓寧大君)이란 군호(君號)를 내리는 것과 함께 따로히 교서를 내렸다.

『과인은 내가 자신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어찌 하여 회전(悔悛)을 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이에 이르렀느냐. 이제 백관이 너를 폐하라는 소청이 있어 과인도 어찌할 수 없어 부득히 중의에 따랐노라. 총령이 이제 너를 대신하였으니 반듯이 너에게 후하게 대하리라.』

문귀등은 양령대군 제에게 태종의 교서를 전

하고 또한 백관들의 상소문을 보여 주었다.

양령대군 제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지난날 한때 내가 세자위를 사위(辭位) 코저 한바 있었으나 그는 부왕께서 너무 총령을 후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죄를 얻었으니 고금천하에 나 같은자가 일찌기 살아남은 예가 없었으니…….』

이미 죽음을 각오한 표정이었다. 그는 곧 광주(廣州)로 떠났다.

(다음호에 계속)

—〈生活知識〉—

◎ 자주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며 귀가 아프고 살결이 거칠어 잘 트는 것은 비타민 A의 부족 증세이므로 우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등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아기가 담배꽂초나 그밖에 먹어서는 안될 것을 먹었을 때는 우선 입안에 남은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뒤, 젖을 먹이도록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 젖은 토하게 하거나 뱃속의 해독을 없애주는 효과적인 약

이기 때문이다.

우유를 먹는 아기는 좀더 많이 먹여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도록 해야 한다.

◎ 접시에 약간 금이 갔을 경우는 금이간 접시를 우유속에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잔금 사이에 우유가 차서 금이간 부분이 메워진다. 이때 우유가 넘쳐 흐르거나 솥에 눌러 붙지 않도록 불꽃을 조절해야 한다.